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신용 경색이 미 침체 가능성 높인다

[SVB 사태와 미국 금융]

- CNBC: SVB 고객들, 이틀간 은행 예금 거의 인출한 것으로 밝혀져
- WSJ: 금융 세계는 천천히 다가오는 은행 위기에 대비해야
- WSJ: 미 은행들 SVB 폐쇄 관련 연준 질책

[물류]

- WSJ: 작년과는 달리 소매업체들 해상 운송비 크게 절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기업들 가격 올린다
- Bloomberg: 이달 말에 IRA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 WSJ: 회계사 부족 해소, 급여 인상만 능사 아니다
- CNN Business: Foot Locker와 Bed Bath에 대한 엇갈리는 부동산 전망

[보고서]

- The Economist: 인공지능에 올인하는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A Credit Crunch Is the Last Thing the Strained US Economy Needs

신용 경색이 미 침체 가능성 높인다

- 한마디로 연준의 고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SVB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가 미 경제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Neel Kashkari는 이달 26일 인터뷰에서 “금융 위기 사태로 침체가 가까울 수 있다. 신용 경색 확산 현상을 연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용 경색은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악화되도록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진다는 말이다. 신용 경색은 고금리 정책 상황에서 당국의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예금 감소, 또는 자기 자본 축소 때문이다.
- 한편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최근 금융 위기로 미국의 대출이 2%나 5% 줄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Bloomberg 기사

[SVB 사태와 미국 금융]

CNBC: SVB customers tried to withdraw nearly all the bank's deposits over two days, Fed's Barr testifies

SVB 고객들, 이틀간 은행 예금 거의 인출한 것으로 밝혀져

- 규제 당국이 실리콘 밸리 은행을 압류한 날 이후로 3월 9일 패닉에 빠진 고객들이 무보험 예금의 인출이 위험하다는 우려로 은행에서 4백20억 달러를 인출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그 금액은 그 다음날 인출한 1천억불에 비해 미미한 금액일 수 있다고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연준의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인 Michael Barr가 밝혔다.
- 이들 총인출 금액 1천4백20억달러는 작년말 현재 SVB 예치금 1천7백50억달러에 81%에 해당한다.

CNBC 기사

WSJ: A Rapid-Finance World Must Ready for a Slow-Motion Banking Crisis

금융 세계는 천천히 다가오는 은행 위기에 대비해야

- 설사 연준과 FDIC는 현재 SVB의 여파를 중단시켰지만, 작은 은행들은 향후 수년간 관련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 최근 수십년 동안 금융위기는 갑자기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주말에 악화하던 월요일 아시아 시장이 문을 열면 파급 효과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 SVB 사태는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발생했는데 앞으로 많은 은행이 신용 경색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거나 합병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과거 수십년간의 사례를 보면, 전 세계 은행의 위기가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렸다는 점이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약 3천개의 소규모 미국 저축 및 대출 기관과 은행 대부분이 폐쇄되거나 구제 금융을 받았다.

WSJ 기사

WSJ: Retailers Reaping Big Savings on Ocean Transport Costs

미 은행들 SVB 폐쇄 관련 연준 질책

- SVB 사태 관련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연준이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의 추락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 반면에 연준 정책결정자는 문제 해결에 되지 못한 이유는 회사 임직원 탓이라고 말했다.

- 즉, 연준의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인 Michael Barr는 연준의 대응책을 정당화하면서 “연준은 SVB가 3월 10일 추락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우려감을 표시했으며 리스크 관리 평점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상원 의원들은 “연준이 낮잠을 잤었거나 문제를 알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WSJ 기사

[물류]

WSJ: Retailers Reaping Big Savings on Ocean Transport Costs 작년과는 달리 소매업체들 해상 운송비 크게 절감

- 해상 운송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회사들이 연간 단위의 계약 체결을 미루면서 소매업체들은 해상 컨테이너 운송에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Hobby Lobby Stores Inc.의 재무 책임자인 책임자인 John Cargill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의 컨테이너 무역 평균 가격이 매우 하락했다고 말했다.
- 수입업자와 해상 운송 회사는 4월 중순까지 재계약을 하게 된다. 예전에 소매업체들은 적은재고를 보충하려는 계약을 체결하고 컨테이너 선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금액을 지불했던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업체 Balsam Brands는 작년 가격과 비교하여 약 75%가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요금과 대략 일치한다. 해상 운송 수요가 감소하면서 현물 시장 비율이 팬데믹 시대 최고치에서 90% 이상 하락 했다.
- 운송 데이터 전문가인 Xeneta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에서 미국 서해안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평균 현물 요금은 1,289달러로 계약 가격보다 약 668달러 낮다. 현재 해당 노선에서 운송 평균 계약률은 1,95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낮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Corporate greed is jacking prices higher. It could push customers over the edge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기업들 가격 올린다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부터 2022년 3분기까지 기업 이익은 무려 28%나 증가 했다. 동기간 임금은 14% 올랐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탐욕 인플레이션” (greedflation)을 언급한다. 기업들이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객들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Société Générale의 글로벌 전략 이코노미스트인 Albert Edwards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기업들이 추가 이익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고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 그는 고객들이 언론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예상했으나,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을 분명히 이용했다”며 비용이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수익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Auto Industry Awaits US Rules on IRA Tax Credits 이달 말에 IRA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금 공제와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된다. 당초 발표된 해당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산일 경우, 그리고 전기 배터리 자재의 40% 이상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해 공정을 거칠 경우 7천7백불까지 소비자들이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 미국의 이같은 중국 EV 공급망 차단 목적이 완전히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유럽 등의 불만외에 미국내 효율적인 비용 면에서 절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이 당초 예상한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기는 힘들다고 Securing America's Future Energy의 Abigail Wulf는 진단했다.
- 중국은 리튬, 니켈 등 관련 공물 추출과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으며 보다 싼 값에 노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WSJ: Accountants' Salaries Are Rising, but It May Not Add Up to More Accountants 회계사 부족 해소, 급여 인상만 능사 아니다

- 지난해 미국 회계사와 감사직원들에게 제공된 급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으나, 업계 관측통들은 급여 인상만으로 회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회계 및 감사 업무는 오랫동안 기술 및 투자 은행의 직종보다 급여가 낮고, 저평가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 그렇기에 기업들은 급여를 인상하는 것 외에도 보너스를 제공, 대학생 및 청소년에게 회계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대학 졸업생 스카우트, 더 많은 책임 부여 및 유연한 근무 방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 Revelio Labs Inc.의 채용 게시물 리뷰에 따르면 미국 회계사 및 감사인이 제공하는 초봉은 평균적으로 2022년에 전년 대비 13% 증가한 6만1000달러에 육박했으며, 2021년에는 4%, 2020년에는 2%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 엔트리 레벨(Entry-level) 급여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67,000달러였다.

WSJ 기사

CNN Business: Foot Locker is closing 400 stores. They may become an eyesore**Foot Locker와 Bed Bath에 대한 엇갈리는 부동산 전망**

- 주요 소매 체인점인 Foot Locker와 Bed Bath&Beyond가 약 800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하지만 Bed Bath & Beyond의 매장을 인수하려는 소매 업체들이 있는 반면, Foot Locker의 매장은 오랫동안 비어 있을 것이라고 소매업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한다.
- Foot Locker와 같은 폐쇄형 매장은 세입자가 적은 경향이 있고 주변 쇼핑객의 수가 적은 편이다. Foot Locker의 폐쇄는 온라인 쇼핑이 자리를 잡고 쇼핑몰 주변의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Bed Bath&Beyond의 매장은 대부분 동네 쇼핑 센터나 스트립몰 내 독립형 매장이자. 식료품점, 명품 소매점, 식당, 체육관, 아파트 등이 있는 독립형 매장은 야외에 있어 고객들이 산책할 수 있고, 더 오래 머물게 하여 무언가를 구매할 가능성을 높이는 세입자들이 많다.
- Foot Locker와 Bed Bath&Beyond의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쇼핑 트렌드와 미국 소매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상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의 미래는 미국 전역의 지역 세금 기반, 일자리 및 지역 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The Economist: Big tech and the pursuit of AI dominance****인공지능에 올인하는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 MS가 자사의 화상 회의 서비스인 Teams에 사이드바를 포함했다. 이는 가상 회의 기록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요약を提供한다. 3월 16일 MS는 Word와 Excel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산성 소프트웨어(Productivity Software)에 Teams와 같이 기계 지능을 추가 했다고 발표했다. 알파벳 또한 Gmail과 Sheets와 같은 생산성 제품에 대해 유사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다.
- OpenAI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GPT-4를 출시 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또 다른 AI 스타트업인 Hugging Face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가상 비서인 Siri를 포함한 새로운 AI 모델의 사용을 테스트 하고 있다. 3월 21일 구글은 Bard라고 불리는 경쟁사인 ChatGPT에 자체 AI 챗봇을 출시 했다.
- 다섯 개의 회사는 모두 AI 도구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같은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AI에 대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 빅테크가 기술을 배치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 이들에게 AI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AI 기술은 아마존에게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제공하는지, 구글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찾고, 애플은 시리에 스마트를 할당 하며, MS는 고객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돕고, 메타는 광고를 제공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4와 같은 '생성적인'(Generative) AI 모델은 전환점으로 보인다. ChatGPT와 같이 생성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이는 인터넷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문장, 이미지 또는 음조(Tune)에서 그 뒤의 단어나 문장을 예측한다. 많은 기술자들은 이 기술이 "플랫폼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I는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의 토대가 될 것이다.
- 하지만 이 회사들은 Kodak에서 BlackBerry에 이르기까지 한때 비즈니스에 지배적이었던 기업들이 파산했던 경험을 알고 있기에 위험한 결정은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투자가 쇠약하고 있다. 2022년 기술 주도의 주식 시장 위기 속에서 이 회사들은 2019년 1,090억 달러보다 증가한 2,230억 달러를 연구 개발에 쏟아 부었다. 이는 자본 지출 1,6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로, 3년 만에 두 배가 되었다. 이는 2015년 16%에서 지난해 전체 연간 매출의 26%에 해당 한다.
- 메타 CEO인 Zuckerberg는 AI가 메타의 가장 큰 투자 범주라고 말했다. 알파벳은 4월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AI 투자 규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AI에 어떻게 베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베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기술에 많은 규모의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회사인 PitchBook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기업의 인수 및 투자 합계 중 약 5분의 1이 AI 기업에 관련되어 있다.
- 투자와 마찬가지로 빅테크의 AI 관련 분야 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구글, 메타 및 MS의 일자리 중 지난 3년동안 평균적으로 AI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더 높다. Predict Lead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알파벳의 일자리 중 약 4분의 1이 AI와 관련이 있고, 메타가 8%로 그 뒤를 잇는다. 검색 회사인 Stanton Chase의 Greg Selker는 최근 빅테크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직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The Economist 기사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머스크 등 CEO·전문가들 "첨단 AI 위험...개발 일시 중단하자"

"인류에 심각한 위험 가능성...6개월간 개발 멈추고 안전협약 만들어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문가,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자들이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험성을 미칠 수 있다며 최첨단 AI 시스템의 개발을 일시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FLI)는 이날 유명 인사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공개 서한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인 GPT-4를 능가하는 AI 시스템의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